지령 20000호에 부쳐

호남 언론의 선구자로서 100년 향해 나아갈 터

지역 언론의 선구자 광주일보가 오늘 자로 지령 2만 호를 발행했다. 1952년 2월 11일 창간호를 낸 광주일보(전신 전남일보)는 63년 3개월 17일 동안 호남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 해 왔다. 2만 호 발행은 호남 언론사의 획기적인 사건이자 전국 일간지 가운데 12번째 기록이다.

광주일보는 1980년 11월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조치에 따라 전남일보(지령 9643호)와 옛 전남매일신문(1960년 9월 26일 창간·지령 5806호)이 통합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그해 12월 1일 새로운 사명(社名)으로 거듭나게 됐다.

본보가 '불편부당의 정론을 편다. 문화창달의 선봉에 선다. 지역개발의 기수가 된다'는 3대 사시(社是)를 밝히며 다시 태어난 것은 호남 대표지로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민과 동고동락을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광주일보의 63년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대한민국과 호남이 헤쳐 온 지난 세월이 그만큼 힘들고, 험난했던 탓이다. 6·25 전쟁과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8올림픽, IMF 외환위기 등 격동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숱한 도전과 역경을 딛고 호남 대표 언론으로서 위상을 꿋꿋이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과 애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질책과 성원 덕분이었다.

2만 호가 발행되기까지 광주일보는 호남의 역사이자 지역민의 기록이었다. 창간호 1면 톱 기사는 휴전회담 기사와 연계한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 기사였다. 당시 지방신문으로는 유일했다. 이후 광주일보는 4·19 혁명, 5·16,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민주화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갖은 핍박에도 정론직필의 끈을 놓지 않았다.

언론의 암흑기로 불리는 70년대 유신시대에 언론 자유 실천을 결의했으며, 80년대 군사독재시대에도 '최승호 칼럼' 등을 통해 울분을 토해냈고, 냉엄한 현실 속에서도 언론의 사명을 다해왔다.

1980년 5·18 민중항쟁 때는 10일 동안 신문 발행이 중단돼 언론 기능이 마비됐지만 6월 2일 '무등산은 알고 있다'(전남일보), '광주는 영원하다'(전남매일신문) 등의 기사로 피맺힌 절규를 대변했다. 1989년 1월부터 7월까지 47회에 걸쳐 게재한 기록물 '5·18…그 후 9년'은 5·18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광주일보는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의 대체 추모곡 지정 음모,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영광)원전 방사능 유출 은폐 시도, 호남선 KTX 개통 첫날 차체 파손 등 수많은 특종 보도를 했다. 2007년부터 다문화 관련 시리즈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 국제엠네스티언론상·한국기자협회 기자상·한국신문상 등을 받기도 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호남은 산업화 과정과 정치적으로 소외돼 오랜 세월 홀대와 설움을 당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박정희 정권의 살벌한 시기인 1966년 3월 광주일보는 '호남 푸대접'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 지역민의 한(恨)을 달랬다.

이후 호남 발전에 대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호남선 복선화 착공(1969.10.8), 호남고속도로 기공(1970.4.15), 여수석유화학기지 착공(1976.11.10), 광양제철 1기 준공(1987.5.7)에 이어 대불산단(1989.11.3), 광주 첨단산단(1990.11.2) 기공 등을 이끌어냈다.

특히 호남 사람들의 염원을 이룬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기아차 광주공장과 현대삼호중공업(구 한라중공업)이 회생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이 들어서게 된 것도 본보가 일구어낸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광주일보는 다양한 사업과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해 왔다. 4·19 직후 희생자 유가족 돕기운동과 광주학생회관 건립 캠페인, 북녘 동포에 경운기 보내기운동, 상무대 반환운동, 5·18 묘지 민주나무 헌수운동, 남도학숙 건립 캠페인, 무등산 국립공원 만들기 등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 문화·예술과 스포츠 발전에도 커다란 공헌을 해 왔다. 1955년 6월 13일 광주일보 주최 제1회 호남예술제가 개최돼 올해로 60회를 맞기까지 수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했으며 지역 문화의 산실로서 역할을 했다. 1984년 9월 20일 광주일보 자매지 '月刊 藝鄕'이 발행된 것도 '문화창달의 선봉에 선다'는 사시의 실천이었다.

1965년 처음 테이프를 끊은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는 금년에 50회를 넘기면서 호남 육상의 메카로 거듭났고, 1994년 첫 시구를 선보인 광주일보 주최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역시 호남 야구의 부활과 중흥을 일궈냈다.

이제 광주일보는 2만 호를 발행하기까지 언론으로서 자책과 자괴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시 옷깃을 여미고, 신발 끈을 조여 맬 것이다.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과 현안 해결 등 언론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우리는 지금 지역이 처한 현실을 직시, 광주일보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다.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면서 지역민과 고락을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호남 대표 언론으로서 명예를 지킬 것이다.

광주일보는 불철주야 호남인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는 63년 전의 초심(初心)을 되새기고, 100년을 향해 나아갈 것은 재삼 약속 드린다. 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드리며, 배전의 충고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는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석남꽃 이야기

윤 재 웅
동국대학교 교수·문학평론가

바람이다. 바람 분다. 남풍 동풍 훈풍 분다. 그 바람 빗겨 타고 종달새 쨋재거리고, 우쭐우쭐 청보리는 제 허리통 부끄럽다. 우람한 산엣총각, 수줍은 들색시 썸타는 5월. 햇살은 따갑고 이마엔 한줄기 땀방울. 태아들은 그래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린다.

생명이다. 숨결이다. 가슴 뛰고…, 피는 잘 돌고…, 마음은 박자도 없이 통기쳐 달아나는 꿩새끼들 기분이다. 다들 몰라도 장미는 그걸 아는 눈치다. 산에도 들에도 거리에도 담장 안에서도, 장미는 별까지 자라고 싶다.

꽃피는 건 좋은 일이다. 어머니 배 속 생명의 태동처럼 아름다운 일이다. 보라. 유전자를 복제해서 생명을 영속시키는 게 사랑의 생물학적 정의다. 바람이 선들 불어 아기 발가락 꼬물거리면 지상의 모든 장미의 눈들은 나비처럼 날아올라 서로의 짝을 찾는다.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붓다의 가르침이 교향곡처럼 울려퍼지는 순간이다.

5월엔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부처님 오신 날이 몰려 있어서 꽃구경을 자주한 편이다. 카네이션이며 장미며 작약꽃 송이송이들이 지하철 승객들처럼 어디에서 실려 왔다 어딘가로 실려 가고, 꽃이 있던 그 자리엔 그 빛깔과 향기의 기억만 점차 희미해져 간다.

그렇게 5월이 가는 동안 간절한 옛날 꽃이야기 하나 떠올라 꽃 사라진 그 자리를 채운다. 정보화사회 다음 사회는 이야기와 감성이 지배하는 사회라는데, 우리의 옛날 꽃이야기는 여기에 얼마나 어울리는 콘텐츠일지 기대된다.

신라 사람 최항은 자(字)를 석남(石南)이라 한다. 애인이 있었으나 부모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죽었다.

죽은 지 이레 만에 항이 그녀의 집에 찾아가 '이제 부모 반대가 없으니 뜻을 이루자' 말하고 석남꽃 가지를 나누어 머리에 꽂은 채 항의 집으로 함께 오게 되었다. 항이 자기 집 담을 넘어갔는데 동이 틀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

집안 사람이 아침에 나와 보니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지라 이상히 여겨 물으니 항이 함께 가자고 해서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항이 벌써 죽은 지 여드레 되어 오늘 장사 지낸다 하니 여인이 믿지 못해 사람들과 함께 관을 열어보게 되었다.

과연 여인의 말대로 항의 머리에 석남꽃이 꽂혀 있었고, 벗겨져 있던 신발은 밤새 어디를 돌아다니다 온 듯 신겨져 있었다.

항이 죽은 줄 그때서야 알게 된 여인이 기막혀 죽으려 할 때, 그 소리의 기미에 놀라 다시 살아난 항. 정성들여 여인을 살려내어서는 한 30년 함께 잘 살았다는 이야기다.

이 연인들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에 왜 꽃이 등장했을까? 신라시대의 꽃은 오늘날처럼 감사의 선물로 주고받는 마음의 대체재가 아니었던 듯하다.

그것은 기념품이기보다 오히려 신성한 생명의 상징으로서 겨레의 집단 무의식에 작동하는 '부활 프로젝트'의 핵심 소품이었다. 우리 민족서사의 시원인 '바리데기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서천 꽃밭의 그 꽃이 죽은 이를 살리는 매력적인 화소(話素)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것은 석남꽃이어도 좋고 영산홍이어도 좋으며 도라지꽃이어도 무방하다. 꽃은 식물들의 종족 번식 프로그램이요, 사랑의 징표인 동시에 수많은 다른 생명체들에 열매를 제공해주는 보살의 화신체 아닌가.

꽃의 이런 무의식 속에 수억 년을 이어온 생명의 간절한 추구, 사랑의 영속과 같은 형이상학이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건 신라 사람 최항 만이어서는 안 된다.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이런 전통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보편적 감화력을 가지는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일에 도전해 보았으면 싶다. 이야기에 정성을 투자하는 이에게 놀라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無等鼓

몽골과 몽고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대외적으로 저력을 평가받은 우리나라는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에 적극 나선다. 1989년 유고슬라비아·헝가리 등과 수교를 맺었으며, 다음해엔 몽골·소련 등과 수교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수교 시, 몽골이 우선적으로 경제 지원이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시급하게 바란 것은 자신의 국명을 몽고가 아닌 몽골로 불러달라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정부는 수백 년 불렀던 몽고를 버리고 공식적으로 몽골이라는 국명을 쓰고 있다.

몽골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몽골리아(the Republic of Mongolia)이다. 몽골을 몽고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인을 '조센징'이라고 비하해서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몽고라는 표현은 중국이 몽골을 몽고(蒙古)라고 표기한 데서 비롯됐다. 중국인들이 몽골인을 무지몽매할 몽(蒙)자와 옛 고(古)자를 써서 비하한 것이다.

오랑캐의 어원은 다양하지만 몽골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다. 몽골 서·북쪽의 산악지대에 살았던 오리앙카이 부족이 기원이라는 것이다. 이 부족은 매우 용맹한 유목 부족이어서 중국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중국은 오리앙카이라는 말에 비하적인 의미를 담아 사용했다. 이후 중국은 주변 모든 이민족을 오랑캐라고 불렀다.

몽골의 원뜻은 '몽'이라는 부족이 중심(골)이 되어 세운 국가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의미다.

최근 세계 10대 자원 보유국인 몽골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세계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몽골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해 지방의 사립대인 조선대가 몽골 최고의 대학들과 공동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 대학 최초로 지난 19일 몽골 국립대학인 몽골리안국립과학기술대학(MUST)과 공동 연구를 위한 국제에너지자원연구소를 개설했다. 조선대는 또 조만간 몽골민족대학교와도 공동연구소를 양 대학에 개설한다.

국제 정세의 흐름을 파악해 발빠르게 몽골과의 산학협력에 나선 조선대의 행보에 대학가는 물론 정부가 주목하고 있다. /채희종 사회팀장 chae@

의료칼럼

인상을 결정하는 환한 미소

이 빈 나
전남대치과병원 교수

환하고 깨끗한 미소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예쁜 미소를 위해 잊지 않고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깨끗하고 하얀 치아다.

소비자 전문기관 AC 닐슨코리아가 20~49세 여성 900명을 대상으로 '한국뷰티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가장 받고 싶어하는 미용 관리' 1위가 날씬한 체형관리, 2위가 깨끗한 피부미용관리, 3위가 치아미백으로 나왔다.

치아는 왜 변색되는 것일까? 치아의 색은 치아의 구성요소인 상아질에 의해 결정되지만, 상아질을 둘러싸는 법랑질의 색상과 투명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치아변색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노화로 인해 상아질이 변하거나 커피, 녹차, 와인, 초콜릿 등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으로 인한 색소가 법랑질에 착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외상으로 치아를 부딪친 경험이 있거나 신경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치아, 유아기 때 황달이나 성장하면서 병력에 의한 변색, 약물에 의한 착색인 경우도 있다.

치아변색은 칫솔질이나 치석제거술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미백(Office bleaching), 자가 미백(Home bleaching) 등의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치아 변색의 원인은 치료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인을 올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치아가 어두워진 이유가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요인인지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이 선택돼야 한다. 또한, 미백을 시행하려면 구강위생상태, 치석의 유무, 충치나 치아 표면의 하얀 반점이나 줄무늬 모양의 치아 변색 및 치아의 시린 증상 등에 관해 미리 꼼꼼하게 구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치아 미백은 미백제의 주성분인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활성 산소가 치아 표면의 법랑질과 그 안의 상아질로 침투해 착색된 물질을 표백하는 원리이다.

치아에는 치아로 공급되는 신경과 혈액을 포함하는 치수가 있는데, 치수 내 신경과 혈액공급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여부에 따라 생활치와 실활치로 구분한다. 실활치인 경우 신경치료가 선행돼야 하며, 이후에 전문가에 의해서 미백 시술을 따로 시행한다. 신경치료가 필요없는 생활치의 경우에는 과산화수소의 농도와 시술법에 따라 전문가 미백과 자가 미백으로 나뉜다. 전문가 미백은 치과에서 고농도의 미백제를 치아에 바르고, 미백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수 광선을 쪼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빠르고 효과가 장기간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술 중 치아와 잇몸에 일시적인 화상이나 시큰거리는 느낌이 동반될 수 있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자가 미백술은 치과에서 제작한 환자 본인의 치아형태에 맞춘 장치를 제작해 처방된 저농도 미백제를 담아 사용하며, 매번 치과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미백제를 장치에 넣고 일정시간씩 착용해 미백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따라서 자가미백법은 전문가 미백법보다 장시간 사용해야 하며 그 효과나 유지기간도 떨어지지만, 치아나 잇몸 손상이 최소화된 안전한 방법이다.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관리와 시술 주의사항을 잘 따랐는지에 따라 효과 차이는 크다. 제대로 안전하게 시술이 이뤄졌다면 똑똑한 관리법으로 효과를 확실히 챙기도록 해야한다. 관리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식습관인데, 커피, 콜라, 홍차, 녹차 등의 색음료나 김치 등의 색소식품 등을 많이 섭취한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미백효과를 유지하기 힘들다.

어떤 미백법을 사용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하루 3회의 양치질을 한다면 다소간 유지효과가 지속되며, 저농도의 미백제가 배합된 자가미백치약의 사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치아 미백은 1번의 시술로 효과가 영구 지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한번씩 가벼운 보충 미백을 시행하면 더욱 길게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이나 예비 신혼부부들, 대인관계를 많이 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치아 미백을 하는 것이 대세이다. 시판되고 있는 많은 치아 미백제품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치아미백제 및 시술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근린공원을 만들자

우리 지역에는 주민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녹지공원이 조성돼 있다. 그런데 최근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근린공원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거나 사소한 일로 다투는 등 소란행위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공원에서의 음주는 소란과 무질서로 이어지게 마련이어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며, 특히 공원이 청소년들의 흡연·음주를 부추기는 '탈선의 장소'로 변질할 우려도 일고 있다.

경찰에서는 올해 '근린생활치안 종합대책'의 하나로 공원에서 근린치안 활동, 무질서 지역 해소활동, 여성안심치안 활동 등을 펼쳐 지역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발굴·제거하고 있다. 특히, 도박과 주취폭력, 음주소란 등의 행위는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도·단속을 하고 있다.

공원 등 근린시설에서의 음주소란 같은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도박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시민들이 공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공원 내에 기동순찰대 순찰차를 고정 배치시켜 청소년 탈선 선도 및 음주소란 행위 등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이후 시간대에도 집중 예방순찰을 통해 공원 내 환경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시민들이 어디를 가든지 범죄와 사고의 불안을 느끼지 않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특별 치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종범·광주서부경찰서 기동순찰대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